# 정읍시 '기후 대응' 농업 체질 바꾼다

민간·데이터·신산업 결합 작물 전환•바이오 융복합까지 농업 전환 '정읍 모델' 구축

정읍시가 기후위기와 쌀 소비 감소로 흔들리는 농촌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대대 적 혁신에 나섰다.

정읍시는 민간 중심의 '소프트웨어 혁신'과 데 이터 기반 스마트 기술을 입히는 '하드웨어 혁신' 을 동시에 추진하며 농업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리 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 농정의 첫 번째 축은 자립형 농촌경제 구축 이다. 2022~2025년 70억원이 투입되는 농촌신활 력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자원과 민간 조직 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

100여 개 액션그룹이 실제 사업화에 진입했으

며, 교육·교류 거점인 '혁신공간공유센터'도 2026 년 준공을 목표로 북면 일원에 조성 중이다.

작목 전환과 유통 혁신도 추진한다.

올해 벼 재배 면적 조정 목표(1458ha)를 넘어 1732ha를 타작물로 전환하며 논콩·가루쌀 등 전 략 작물 재배를 대폭 확대했다. 논콩 처리 인프라 도 샘골•신태인농협 선별시설 증설로 4개소까지 확대됐고, 시간당 3t 처리 가능한 종합처리장도 정 우면에 들어선다.

정읍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11개 품목 공선출하회 조직화를 통해 대형 유통망과 안정적 계약을 체결하며 올해 전북도 통합마케팅 평가 A 등급을 받았다. 29.3ha 규모 경관 작물 재배지 조 성도 관광객 유입을 이끌며 '정읍형 경관농업'으 로 정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스마 트 과학영농에도 힘쓸 방침이다. 국비 포함 4억 원 을 투입해 온도·습도·광량·CO2 등 생육 데이터 를 실시간 분석하는 '기후변화 대응 과학영농 통

합관제체계'를 구축 중이다. 12월 중순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설원예 농가의 품질・생산성 향상이 기 대된다. 아울러 43억 5000만 원이 투입된 시설원 예 현대화, 지역 맞춤형 벼 신품종 '전주684호' 선 발 등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농생명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 다. 최근 전북도 농생명산업지구(약용·치유 분 야) 예비지구 선정으로 향후 50억 원 투입 기반을 마련했다. 지황 주산지라는 강점을 살려 생산·가 공·유통에 치유·관광을 결합하는 융복합 산업 모 델을 구축하고, '정읍 지황 농업시스템'의 국가중 요농업유산 지정도 추진 중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 농업의 양 날개는 민 간 역량을 키우는 경제 정책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기술"이라며 "농가가 체감하는 소득 증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공공산후조리원 개원…2주 이용료 180만원

산모·신생아 대상 전문 서비스 도민 30% · 남원 산모 50% 감면 건강 상담・응급처치 교육도

전북지역 동부권 산후조리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산후케어센터 다온' 이 지난 28일 남원시 고죽동에서 공식 개원했다.

총 132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대지 3764㎡, 연면 적 241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신생아실, 맘카페, 마사지실, 프로그램실, 식당 등 산모와 신생아 맞춤형 편의시설 13실을 갖췄 다. 운영은 전북 남원의료원이 맡는다. 정식 운영 은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남원시를 넘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산모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다만, 전북도 거주 산모는 30%, 남원시 거주 산 모는 50%, 지리산권 산모·남원 시민 자녀는 1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주민들이 개원한 산후케어센터 '다온'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센터에서는 산후 마사지, 산후 요가, 소아과 산 부인과 건강 상담, 신생아 응급처치 교육 등 맞춤 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 제1호 공공산후조리 원이 개원된 만큼 이제 남원과 전북 동부권 산모들 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지역에서 안전하게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고

이어 "출산과 돌봄 정책을 이끌 든든한 요람이 생긴 만큼 앞으로도 남원시는 출산과 양육이 행복 한 도시, 나아가 지리산권 대표 출산・육아 중심도 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 조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고창군,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태양광 등 내년 430곳 추진…융복합 지원, 군민 자부담률 20%

고창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는 '신재생에 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총 129억원을 투입한다.

선도하게 된다.

군은 내년 국비 12억6000만원을 확보해 430개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결합해 설치하며, 설치비 의 최대 88%를 지원하고 군민 자부담률을 20% 고 있다.

읍·면 전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신재생 설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축적된 실 적과 기술적 타당성,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게 평 가받으며 재생에너지 보급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

기업과 공공기관의 RE100 전환 지원, 지역 탄소 중립 실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 다양한 정책과 연계될 전망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부안 출신 독립운동가 재조명

광복 80주년 맞아 첫 민간 주도 학술대회…의병 활동 등 발자취



부안 출신 독립운동가와 의병 활동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부안 출신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첫 민간 주도 학술대회가 지난 28일 부안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안학연구소와 부안독립신 문 등 지역 민간 단체가 주도해 마련한 행사로 사업비 전액을 군민과 사회단체의 자발적 기부 로 충당했다.

행사는 부안 출신 근현대 독립운동가와 의병 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역사회에 널 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인물 발굴과 역사 홍보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의 준비는 지난 7월 기본계획 수립과 집행부 구성으로 시작됐다. 8월에는 독립운동가 유족과 보존회 협의, 관련 자료 수집이 진행됐 다. 10월에는 발표자・토론자 섭외와 자료 인쇄 등이 마무리되며 민간 주도 기획이 완성됐다.

학술대회는 노기환 전 전북도 학예연구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이강안 국가보훈부 전북지부 장, 유동수 국회의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참 석해 의미를 더했다.

1부는 김시덕 을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 행됐다. 박대길 우리문화역사연구소 박사는 '부 안군 출신 독립운동가와 의병사'를, 김주용 원 광대 교수는 '구파 백정기의 고향 부안에서의 활동과 1920년대 항일 의병투쟁'을 주제로 발 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장충희 전북학연구센 터 박사와 강철수 구파 백정기기념사업회 박사 가 참여했다.

2부에서는 윤상원 전북대 교수가 '부안 출신 혁명가 김철수의 생애와 근대사'를 소개했다. 이어 김형관 무순대 교수는 '부안 출신 독립운 동가·의병 기록과 신규 독립운동가 활동'을 발 표하며 연구 범위를 넓혔다. 토론은 박종오 전 남대 교수가 맡았다.

3부 종합토론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함 께 부안 독립운동사 복원 방향과 향후 추진 과 제를 논의했다. 전북역사연구원 김경민 원장, 감용훈 나루역사문화연수원장 등이 참여해 지 역사 연구의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안=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 '오단소하천' 범람 위험 해소

준공 40년 유정교 철거…하천 흐름 방해해 홍수 위험 지적

정읍시가 집중호우 시 하천 흐름을 방해해 홍수 위험을 키웠던 오단소하천 내 유정교 철거 공사를

정읍시는 이번 철거를 통해 감곡면 주민들의 숙 원이 해결되고 하천 범람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 방하는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의 길이 열렸다고 설 명했다.

유정교는 1985년 준공된 노후 교량이다. 전북 도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던 지방도 상의 시설 물이었다.

2016년 지방도 701호선 노선 변경에 따라 관리 권이 정읍시로 이관됐으나 교량의 교각이 촘촘해 하천의 유수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집중호우 때마다 부유물이 걸려 물의 흐름

이에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한국철도공

이 막히거나 유속이 급변하면서 하천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등 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사 전북본부와 교량 철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 해 철거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철거 완료로 하천 통수 단면이 확보됨에 따 라 향후 집중호우 시에도 하천 범람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주변 농경지의 상습적 침수 피해를 예방해 주 민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생한 현장, 함께한 순간들'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생태 탐험 수업 현장!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1500여 개소에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돼 지역 에너지 전환을 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하로 낮춰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재생에너지 기반은 향후



www.getbolworldheritage.org

### 「한국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 유 산 명 : 「한국의 갯벌」 (Getbol, Korean Tidal Flats)
- 등재기준 : (x) 생물다양성 및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 등재년도 : 2021년

명칭	합계 (km²)	유산지역 (k㎡)	완 <del>충구</del> 역 (㎢)	
총면적(㎢)	2,030.03	1,284.11	745.92	서천갯벌 •
서천 갯벌	104.66	68.09	36.57	고창갯벌・
고창 갯벌	74.11	55.31	18.80	신안갯벌 · 보성~순천갯벌
신안 갯벌	1,773.40	1,100.86	672.54	
보성-순천 갯벌	77.86	59.85	18.01	

※ 유산지역 면적은 서울시(605.24㎢)의 약 2배, 전체 연안습지보호지역 (1,497.24㎢)의 약86%, 국가연안습지(2,482.00㎢)의 약52%를 차지

### 「한국의 갯벌」이 가진 독보적인 특징

-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주는 깊은 산소층
- 갯벌 주변에 섬과 산이 보이는 수직적 경관







• 다양한 형태의 아름다운 갯벌 경관





모래-자갈 선형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움

### 혼합갯벌 속의 모래갯벌 한국의 갯벌 VR프로그램

### 한국 갯벌의 생태를 VR로 만나보세요! 철새이동, 먹이활동, 서식굴, 짱뚱어 싸움, 엽낭게, 염생식물, 오염된 갯벌 구출까지 7가지 컨텐츠로 갯벌의 생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펄갯벌 위의 수채화

오염된 갯벌에서 갯벌생물을 구하자



갯벌의 청소부 엽낭게 염생식물의 역할